

한국창작음악연구회 '2004 다악(茶樂) 페스티벌'

네 명 작곡가 '사군자' 주제로 창작곡 공연



한국 전통 창작 실내악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한국 창작음악연구회 회원들.

다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추할 때 피어오르는 음악은 어떤 선율일까? 흔히 '차자리 음악'이라고 불리는 다악(茶樂)은 차를 마시며 들을 만한 조용하고 선(禪)적인 음악이나 차자리 풍경을 묘사한 음악을 일컫는다. 하지만 전통 국악을 선별해서 듣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정서에 맞는 다악을 창작, 발표해 온 단체가 있다. 바로 1982년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추계 예대 교육대학원장)다.

우리 고유의 음악언어에 뿌리를 둔 창작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19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의 일환으로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이를 악보집과 앨범으로 발매함으로써 다악이란 장르 개척에 앞장서 왔다.

매년 창작 다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연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회는 지난 11월 13일 서울중우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2004 다악 페스티벌'을 개최해 200여 차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다악 페스티벌'은 차와 만나는 정취를 음악에 담아냄으로써 차자리에 국악의 향기는 전하는 무대. 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다악(茶樂)'을 시작으로 99년 '그 푸른 날들의 차잔-초의'에서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를 재조명했고, 2000년 '차잔에 스민 사계(四季)' 2001년 '차마시기 좋은 때, 풍정(風情)' 등의 공연을 펼쳐왔다.

'사군자에 스민 다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네 명의 작곡가가 매화와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화두로 삼아 작곡한 음악이 첫선을 보였다. 박일훈(국민대) 교수의 '봄별을 깨우는 매향' 백승우(경원대) 교수의 '깊은 계곡의 가인' 김정수(추계예대)의 '흰 서리 속에 피는 만향' 이상규(한양대) 교수의 '만파식의 세한고집'이 초입향다화와 반야로차문화원, 육산불교문화원의 다례시연과 함께 펼쳐졌다. 특히 고요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행다와 단소 대금 해금 양금 가야금 거문고 등으로 풀어나간 사군자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했다.

한국의 다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공연을 준비 중인 김정수 회장은 "차는 몇 천 년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해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며 "차와 음악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있다"고 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악이란 단순한 차와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차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박일훈 교수는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발표한 다악 앨범.

차 한잔에 마음 녹이고 다악 선율에 풍요로움 느끼네



한국차문화협회 천안지회 교도소 다도 봉사

식막하기만할 것 같은 교도소의 높은 담을 넘어 소박한 차자리가 꾸러졌다.

재소자, 시설 적용 교육 일환

(사)한국차문화협회 천안지회(회장 전재범)가 한 달에 한 번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송두식) 재소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다도교육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가석방 예정자들의 사회 적응훈련기관으로, 다도교육은 이들의 시설적응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설에 적용하지 못한 탓인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정신교육'에 지친 탓

수(38, 가명) 씨는 "티백 녹차는 마셔 봤지만 다구로 차를 우려보는 처음"이라며 "출소 후에 차를 계속 배워 보고 싶다"고 말한다.

어느덧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다담(茶談) 시간이 끝나고, 재소자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 와중에도 박영춘(47, 가명) 씨는 "저녁 먹은 후에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남은 차를 봉지째 얻어간다.

고민 듣고 나는 보람된 시간

보람을 느끼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 이영미 씨는 "처음에는 떨리고

어려운 시기에 접한 차 인연 계속 이어지길...

인지 강당에 모여 앉은 30여 명의 재소자들은 그리 표정이 밝지 않다. 차 인연 봉사자로 참여한 다도 사범 6명의 표정도 조금씩 굳는다. 이 때 전재범 회장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서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여러분 다도라고 하면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지리 복잡한 생각하시죠? 하지만 차를 마시는 5분 동안 우리 민족의 천년의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썰렁했던 분위기 차 온기로 가득

전 회장은 차의 효능과 역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봉사자들의 '선비차' 시연이 펼쳐진다. 처음 접하는 다도 시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재소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은 차자리가 펼쳐지자 서서히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봉사자 한 명과 5-6명의 재소자들이 마주 앉아 차를 우려내고 나눠 마시기를 여러 차례. 썰렁하던 강당이 차의 온기로 금세 따뜻해진다. 중국식당을 운영했다는 김민

긴장됐지만 이제는 차를 나누며 재소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9년 창립한 천안지회는 지난 4월 부러 교도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천안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이 직접 차를 우려보고 있다.

다. 매년 다구와 차, 보온병, 방석을 비롯해 준비로 떡도 준비해 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들은 기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전 회장은 "재소자들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차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차 한 잔이 재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차와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가 웃는다. 천안=여수령 기자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7) 차 문화사

삼국시대 ⑤

이 시기는 삼국의 문화가 무르익을 때라 중국과의 교류가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교에까지 퍼져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는 수당의 연속된 침입으로 연개소문이 집권하여 대외적인 방면에 국력을 쏟고 백제와 신라도 대외적 교류에 힘을 기울였다. 당 왕조의 건국으로 중국과의 왕래도 활발해지고 문물의 수입이

찾아졌으며 일본과의 왕래도 많았다. 특히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으로 건너가 법흥사의 금당벽화를 그렸고 백제의 기술자들이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김춘추가 직접 일본에 다녀올 정도로 일본은 삼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의

삼국 국력강화 시기...대외 교류 활발

다풍(茶風)이 저들에게 전해졌다. 신라의 불교는 더욱 융성해 사찰, 불상 건립에 따라 차의 파종과 전파가 확대되는 시기였다.

① 백제는 전 해에 수덕사 금산사를 창건했고 고구려는 이문직에게 <신집>

을 편찬해 했으며 신라는 원광법사가 수에서 돌아왔다. ② 담징은 체화에 능숙해 법흥사의 금당벽화를 그려 경주 석굴암과 중국 의 운강석불과 함께 동양 삼대(三大) 미술품을 남겼다. ③ 원효가 그곳에 기거하니 사포성

인(蛇包聖人)이 석간수(石澗水)로 차를 끓였다. ④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당에서 돌아온 대령이 차를 지리산에 심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차는 원래 선덕여왕 때도 있었다고 했다. ⑤ 이때까지는 선승들에 의해서 교

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유학자들도 입당하는 많아졌고, 그들 사이에서도 차생활이 보편화됐다.

⑥ 자장율사가 당에서 돌아와 통도사에 차를 심었다.

⑦ 서적은 태종에게 '이(李)로 사성을 받았으며 후에 <신수본초(新修本草)>를 남겼다.

⑧ 수의 문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차를 끓여 마셨더니 좋아져서 전국에 차장려책을 썼다.

⑨ 최초로 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국 남방 40여 개 주 군 현이 차를 생산하고 그 무역의 양이 막대했으므로 나라에서 통괄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 성균관대 예절도학

기원전 시대		⑧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599 수덕사, 금산사 창건	594 서적 ①	602 백제 승려 관백이 오대(달력, 천문, 지리) 604 17조의 법 제정	
600 <신집(新集)> 편찬 ① 원광법사 수에서 돌아옴	600 문제의 차 장려책 ②		
도리(고구려)가 일본 원흥사 불상 주조	612 수왕제 고구려 침공		
602 승려 지명(僧明)이 수에서 귀국(신라)	618 수의 멸망		
604 승려 담육(曇育)이 수에서 귀국(신라)	당의 건국		
610 담징이 일본으로 건너가(고구려) ②			
620 백제와 신라가 당에 조공			
622 일본에 불상, 금판을 보낸(신라)	624 균제, 조종제 실시		
634 분황사 창건, 명묘사 건립(신라)	626 당대중 즉위		
635 원효방 ③			
④ 선덕여왕 때 차를 많이 마셨다 ④		④ 현정 상념 인도로 가다	
636 자장 율사의 입당			
640 삼국의 자제들이 입당하여 국학에서 배우기를 청하다 ⑤			
642 연개소문의 집권	644 고구려 천정(태종)		
643 통도사에 차를 심다 ⑥	646 다법(茶法) 제정 ⑨		
647 김춘추가 일본에 다녀오다			
648 김민인의 입당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과일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山蔘으로 효력을 높보셨어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선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평선 불암사 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악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태산 후 왕조대에 시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재배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문화도 국물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양을 확실히 합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맛깔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차 만삼(長壽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분이 최고라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압증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아졌다.
- 사군 증후군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아졌다.
- 행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에게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물 : 시술기 100원/40분,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 사본불사 :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유행과 같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1000원 환급)

만삼알인물(만삼생것 10g, 참기·잔대·삼지귀릅소·생강·다수·감초)

● 1Box(60포) = 20만원 | ● 2Box(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평선군 동명 읍내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신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업계전화 : 315024-52-012392 (여금주·심정택)

부처님이 광영으로 나루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 곳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증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보세 소원이 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송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암사 10분 소요

▶ 비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령주자장 원비